

## “대우조선 정상화, 이동걸 퇴진부터”

### 대우조선 노동자 살리기 금속노조 결의대회 ... “조선노연으로 단결해 자본에 저항할 것”

금속노조가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매각을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장 퇴진 투쟁을 본격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1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한 이동걸 퇴진, 대우조선 노동자 살리기,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퇴진을 외쳤다. 이날 집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 거제시민대책위 등이 함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조선 산업정책으로 울산과 거제의 수많은 조선 노동자가 길바닥으로 내몰렸다. 지역경제는 초토화됐다.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라면서 “잘못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대우조선 불공정 재벌 특혜 매각이다” 라고 꼬집었다.

윤장혁 위원장은 “조선산업이 호황으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노동자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우조선 정상화는 잘못된 매각을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장 문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며 “청



와대는 노동자들 목소리를 들어라. 금속노조는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조선산업을 살리는 정책을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2019년 5월 대우조선 매각 관련 현대 계동사옥 투쟁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동지 26명이 형을 받았다.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동지들이냐, 조선산업을 망친 저들이냐” 라고 일갈했다.

정상현 지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매각 성사에 자기 자리를 걸었다고 한다. 대우조선 23,000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걸고 도박을 했다. 할 수만 있다면, 조선 노동자 이름으로 해고하고 싶다” 라면서 “이제 우리는 조선노연으로 똘똘 뭉쳐 자본과 채권단에 저항하고 싸우겠다. 끝까지 함께 해달라” 라고 호소했다.

정병천 지부장은 투쟁사에서 “현중 자본은 대우조선에 이용해 정주영에서 아들 정몽준, 손자 정기선에게 부를 세습하려는 욕심을 아직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가 많다. 조선노연 공동의장으로서, 현대중공업지부장으로서 조선산업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끝까지 연대해서 승리하겠다” 라고 결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장, 정상현 대우조선지회장이 각각 ‘불공정 재벌특혜’, ‘산업은행 이동걸’, ‘허수아비 이성근’을 상징하는 항아리를 깨는 의식을 벌이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 금속노조 새해 첫 노동조합의 창립 분투기

[사람과 현장] 현대차그룹 다단계 착취 맞서 싸우는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때까지, 교섭이 열릴 때까지 사측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끝까지 민주노조 깃발을 사수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다. “더는 참을 수 없다”라며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든 금속노동자들을 1월 15일 ‘2022 민주총궐기’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2021년 10월 울산 이화산업단지에 들어선 NVH코리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 울산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초동주체는 50여 명. 석 달 남짓한 준비기간을 거쳐 1월 2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를 창립했다.

백승철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부지회장은 “사측의 도를 넘는 갑질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네 명이 해야 할 일을 한두 명이 하거나, 원청이 해야 할 일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맡겼다. 근로계약 연장을 들먹여서 거부도 할 수 없었다”라며 노조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NVH코리아 정규직들과 같은 일을 했지만, 임금·처우는 훨씬 못 미쳤다. 출근 복장을 검열하고, 작업장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 한 하청업체는 근로계약을 1개월마다 연장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는 문자로 해고했다. 하청노동자들은 민주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창립과 동시에 탄압의 광풍이 몰아쳤다. 원청 NVH코리아 자본에 현대모비스 자본, 한국노총 NVH코리아 정규직노조, 한국노총 사내협력사노조까지 거대자본이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총동원령을 내린 듯 했다. 종용, 협박, 강요, 감금, 해고 등 자본과 자본에 무릎 꿇은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백승철 부지회장은 “사측은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고 종결한 사고를 다시 끄집어내 책임을 물어 한 동료를 해고했다. 조합원에 대한 표적 해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한 업체 사장은 ‘한국노총 가입 안 하면 이 방을 못 나간다’ 라면서 면도칼을 노동자 손에 갖다 대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출범 당시 50명이 넘던 현대모비스전동화지회 조합원은 20여 명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 30여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회는 설립 다음 날인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며 동료들에게 민주노조 가입을 설득하고 있다. 원청 NVH코리아는 여전히 지회와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 중이다.

백승철 부지회장은 “임금이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인권, 노동자로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와 사용자 수평관계 확립이 지회의 역할이



라고 생각한다”라며,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철 부지회장은 “우리 공장은 현대모비스가 투자하고, NVH코리아가 위탁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다. 복수의 하청업체와 아웃소싱 업체가 생산하고 있다”라며 “복잡한 구조지만, 결국 모든 결정은 원청 NVH코리아가 아닌 현대모비스, 그 뒤에 현대차그룹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울산 이화산업단지 NVH코리아 공장은 2019년 현대모비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었다. 연간 1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친환경차 부품공장이다. 공장 기공식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라고 말했지만, 2021년 문을 연 공장에 절망이 가득했다.

현대모비스가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공장 안에서 현대모비스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위탁생산을 NVH코리아에 맡겼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방법으로 불법파견 시비를 피하고, 정의선을 위해 현대모비스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